

모두 발언

2023. 8. 28.(월) 10: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금융인프라 유관기관 및 연구원 참석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I . 금융인프라 글로벌화의 의의

오늘 간담회는 우리 금융인프라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K-금융의 우수성을 알리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인프라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아직 금융 발전의 초기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인프라를 한국의 모델로 도입할 경우
그 국가의 금융법, 제도, 시스템이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인프라 수출 과정에서 현지의 당국, 관계기관과
진밀하게 상호 협력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킹과 협력관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진출할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더불어,
양국 관계 발전과 한국 금융의 수출에
중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로·항만, 보건·의료 등
개발원조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진출국의 자본축적 및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금융 격차를 완화시키는 등
진출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Ⅲ.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역할 강화 필요성

그간 금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해외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일부 기관은
실제 시스템을 수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컨설팅이나 연수사업 등을 통해
해외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활동들은
외부의 요청에 따른 프로젝트가 많으며,
기관별로 체계적인 계획하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내외적인 문제로 장기간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그간 해금협은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제금융협력포럼을 국내외에서 개최하고,
해외기관 초청연수,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현재의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 느슨한 협의체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보다 내실화하여야 합니다.

회원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제금융협력포럼과 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간 미흡하였던
해외진출 관련 조정·협력기능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협력국이나 지역, 중점 협력사업 등을
회원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추진하는 등
조정 및 지원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금융분야의 ODA 확대 필요성

그간 금융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금융분야 ODA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느꼈습니다.

금융공공기관들은 그간 정부의 유·무상원조 프로그램,
국제기구의 컨설팅이나 연수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다만, 컨설팅이나 사전 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더라도
실제 하드웨어나 솔루션의 수출 성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분야 해외진출 과정에서
ODA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나,
기획·선정 및 수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다른 분야 ODA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발굴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정책자문을 통해
실제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ODA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금융 인프라의 해외 진출을 통해
한국 금융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쌓음으로써
정체된 우리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입되는 예산 규모 대비 큰 파급효과를 가지므로,
지원국과 수원국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V. 맺음말씀

참석자 여러분,

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을 통해
당장 가시적인 효과나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될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중장기 발전방안과
금융분야 ODA 확대 방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고,
발전을 위한 의견도 가감없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